



한보시국도 땀흘려 예시

표충비의 비밀 아십니까

“요즘 나라의 민족을 생각한다는 지도자들 중에 사명스님만한 어른 있습니까? 어디.”

한보사건의 책임을 물어 단행된 '3·5개각' 하루 뒤인 3월 6일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흥제사(興濟寺 주지 범미)경내 표충비(表忠碑·경남 유형문화재 제 15호)가 상오 11시 30분부터 하오 8시 30분까지 9시간 동안 32%의 땀을 흘린 것을 두고 밀양사람들은 한사국을 보면 당연히 흘 것이 왔다고 입을 모은다.

“하고 말은 전국의 비석들 가운데 왜 유독 사명스님의 표충비만 땀을 흘리는 것일까?” ‘대체 표충비의 비밀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다가온다.

표충비는 임진왜란때 의병장이 되어 나라를 구했던 구국공신 사명대사(1544~1610)를 추모하기 위하여 1738년 대사의 5대 법손인 남봉선사가 경북 경산에서 일석하여 세웠다. 기단과 비주까지 총 3.9m이며 비신은 높이 2.76m 폭 97cm 두께 70cm의 흑암석이다. 비석은 단층광각지붕 비각속에 나무창살 울타리로 모셔져 있다.

지역사람들이 한출비(汗出碑·땀흘리 비석)라 부르는 ‘표충비’는 나라에 종대한 시인이 다할때마다 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8·15해방, 85년 9·18 남북고향방문 등 길사에도 땀을 흘려 예외없는 길충비이다.

십수년간 표충비의 땀흘리는 모습을 지켜왔다는 흥제사 주지 범미스님은 땀 흘리는 모습이 흡사 사람이 땀 흘리는 모습 같다고 증언했다. 작은 물방울이 비석표면에 드문드문 맺히다가 점차 커지면서 흙이 깨진 균열부분으로 흐르지는 않고 글자와 글자사이로 주르륵 흐른다는 것. 또 땀을 흘리는 아래쪽부터 불기가 금세 말라버린다고 한다. 땀의 수량도 한번에 4~5말은 기본이며 기단아래까지 흠뻑히 적셔버릴 만큼 많은 양이라고. 수량 측정엔 비석바닥에 투명수건을 둘러서 흘린 땀을 받은 다음 그곳에 짜서 담아 잴다고 한다.

비각의 창살문을 열고 들어가 비석을 관찰해보니 균열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 비석의 재질상 2백55년 수명치고는 마모가 너무 빠르다고 스님은 설명한다. 놀라운 것은 균열이 진행되는 방향이 어느 비석과는 달리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

30년전부터 흥제사 공양주로 살면서 표충비의 변화를 지켜본 이차득(88세)보살은 “6·25전쟁 때부터 균열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손가락이 들어갈만큼 균열의 폭이 컸다”며 “완전히 아물면 통일이 된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귀띔한다. 구전대로라면 이제는 균열이 거의 아물어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땀이 흘렸던 곳을 찍어 맛을 보았다. 마치 사람 땀맛처럼 짭짤하다.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초 실시한 표충비 땀의 성분조사결과와 인체의 것과 비슷한 염소와 중금속성분이 나왔다.

나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표충비가 흘린 땀방울은 하나같이 귀중한 우리의 근·현대사와 함께 해 왔다. (표 참조)

표충비의 땀이야기가 회자되면서 과학적인 원인규명도 수차례 시도됐다. 기온변화에 초점을 두는 학자들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비석에 저기압이 다가와 응집현상이 일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지질학자들은 비석자체가 철분을 많이 함유한 염기성화강암으로 습기를 머금은 성질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다. 밀양관측소가 설립된 1973년 이후 표충비가 땀을 흘린 날의 기상은 대체로 습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79년

근·현대 민족 길흥사마다 흙 패인 곳 아닌 글자 사이로 너댓말씩 짹짹한 땀을 흘린다 과학자대로도 풀지 못하는 신비

10월21일에는 습도가 48%로 상당히 건조한 날씨였는데도 표충비는 무려 5말의 땀을 흘렸다. 또 풀자체가 습기를 머금은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몇말씩 머글 수 있는지는 것도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수많은 흑암석 비석중 표충비만 유별나게 기후와 상관없이 현사적인 일들을 맞을 때마다 땀을 흘리는 까닭은 현재 미궁에 빠져 있다.

범미스님은 “우리 물은 지수화중(地下水) 4대의 물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로 마음작용에 의합니다. 표충비의 땀은 사명스님의 원력이란 간절한 애국충정이 후손들에게 비석을 통해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지요.” 스님의 마지막 말이 귀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렇다. 신비스러운 것은 신비스러운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늘날 사람들이 살부르게 땀흘리는 표충비를 과학의 잣대로 측정하려는 것을 두고 사명스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근·현대 길흥사와 표충비 땀

연도	사건	수량	습도
1894	동학농민전쟁(7일경)	1말1되	
1910	한일합방(17일경)	4말6되	
1919	3·1운동(19일경)	5말7되	
1945	8·15광복(14일경)	5말7되	
1950	6·25전쟁(25일경)	3말5되	
1960	4·19 의거일	3말6되	
1961	5·16 군사혁명(5일경)	2말	
1970	10·26 박정희대통령시사건(30일경)	2말	48%
1983	8·25 KAL기 폭파사건	1말2되	71%
1984	북한의 남한 수재민 양곡전달	1말	84%
1985	3·25중국어회담사건사과문전달	기록없음	89%
1985	9·18 남북고향방문	1말	87%
1991	4·17 고르바초프 한국방문	2말4되	92%
1992	LA폭동(5일후)	3~4되	57%
1996	1·14 일본과 북도연도권 문제사	8되	97%
1996	6·28 북한수해 아사탈출 극심	6되	90%
1996	11·5 김경중수상 무관공비 침입	1말5되	99%
1997	1·1 새해맞이	2되	81%
1997	김영삼대통령 미국인사과문발표	2말6되	95%
1997	3·5 개각 하루뒤	1말5되	92%

*79년 밀양관측소 개원후 습도 측정

글: 김원우 사진: 고영배 기자



◇흥제사 영당에 모셔진 사명대사 영정. 조선후기 제작.

표충비는 사명스님 5대법손인 남봉(南鳳)선사가 1738년 스승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했다. 앞면에는 공적 행장이 기록됐고 옆면에는 사명스님의 스승인 서경대사와 임진왜란당시 승병장 기해대사의 공적, 뒷면은 표충사 사적 비록이 새겨져 있다. 또 이 비석은 표충사가 사액사당으로 승격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최초의 서원사찰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비문은 영조때 영의정을 지낸 이의현의 사명대사 찬탄글을 가려 썼다. 흥제사 부재학인 김진상이 썼으며 중추부사 유척기가 전(篆)을 내었다. 또 서체는 한글같이 경경시대의 동국진체(東國眞體)풍으로 청경수려(淸勁秀麗)한 것이 특징이다.

“유명 조선국 밀양표충사 승운대사 영당비명 병서(兵瑞) 表忠碑 表忠碑 表忠碑 表忠碑”로 시작되는 표충비문은 사명스님의 호국안민을 위한 업적과 생애를 가리고 있다.

비문에 따르면 1544년(중종 39년) 10월 17일 밀양땅 무안면 고나라에서 풍천 임씨 후손으로 출생한 사명대사는 1562년(선조 25년) 임진왜란당시 금강산 유점사에 주사하며 9개 고을 배성을 구한다. 또 승병을 모아 의승도대장으로 활약하며 평양을 탈환하여 풍진등화어 차해있는 나라를 구할 뿐 아니라 군량을 구축하고 부산산성을 쌓아 국방의 기틀을 다진다.

또 선조 37년 강화사로 일본에 건너가 당시 일본의 실력자 풍신수길을 불력(佛力)으로 굴복시키고 포로로 잡힌 조선사람 3천5백명을 데리고 돌아온다. 선조는 이와 같은 사명대사의 위업을 기리고자 정 2품 자헌대부중추부사 한조판서 의금부사 영의정의 직책까지 내렸으나 이를 사양한다. 이후 사명대사는 승려의 본분을 돌아가 가이산에서 수행정진으로 일관하다 67세에 좌정한 채 입적한다.

이 비문을 통해보면 사명스님의 구국안민력은 △국인 충동일 왜군 격퇴 △백성을 안위하고 농업을 장려 △민력 무장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소탕 △국세회복을 위한 방어책을 세울 것 △충진한 가풍을 뿌리라고 국가기강 쇄신 △구천을 기리지 않는 인본본위 등등 등이다.

표충비에 새긴 뜻

사명대사의 호국안민 업적·생애 기려



◇근·현대의 귀중한 시간때마다 땀을 흘려 민족의 길흥을 일리고 있는 표충비는 현대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를 지니고 있다(사진 위).
◇단층 광각지붕 비각속에 모셔진 표충비의 모습(사진 아래 왼쪽).
◇밀양시 무안면 흥제사 표충비각은 사명스님을 기리는 지역주민과 하루 3백여명의 참배객들이 찾는 명소이다(사진 오른쪽).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代)737-8881